

오쿠이즈모 다타라와 도검 박물관

오쿠이즈모 다타라 도검 박물관은 일본의 고대 제철법인 '다타라 제철'의 역사와 전통적인 일본도 제작법을 소개하는 박물관입니다. 이곳에서는 일본도 제작 실연(철에 열을 가하여 두드려 단련하는 과정)도 정기적으로 개최합니다. 오쿠이즈모는 오늘날까지 다타라 제철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지역이며, 본 박물관은 지역의 제철 유산을 알리기 위해 조성된 시설 중 하나입니다.

다타라 제철은 일본의 독자적인 제철법으로서 6세기 후반에 시작되었습니다. 목탄의 화력을 이용하며 용광로 내부에 바람을 불어넣는 '풀무'가 달린 점토제 용광로에서 수일간 사철을 제련하는 과정을 거쳐 철을 완성합니다. 이 방법은 일본도의 재료로서 귀중한 강철인 '옥강(玉鋼, 다마하가네)'을 제조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박물관의 전반부 전시에서는 다타라 제철의 흥망성쇠를 소개합니다. 후반부 전시는 미술품으로서 일본도용 강철을 만들기 위해 다시 태어난 현대의 다타라 제철과 이러한 전통을 지켜 나가기 위한 노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타라 제철은 제철법을 의미하지만, 단순히 제조법에 그치지 않고 오쿠이즈모와 산인 지방(시마네현, 돗토리현)의 문화를 형성하는 산업이기도 했습니다.